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



VOLUME 298 | APRIL 2022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2022년 4월호 / 통권 298호

발행일 2022년 4월 1일

발행인 정순택

편집장 노우식

편집 및 디자인 직장사목팀 편집부

인쇄 상경커뮤니케이션즈

발행처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3 교구청 별관 5층

전화 02-727-2078 팩스 02-753-3792 홈페이지 www.catholicworkers.or.kr

Copyright 2022©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월간지 <가톨릭 직장인>에 실린 글, 그림 및 사진 등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VOLUME 298 | APRIL 2022

Editor's Note	4
함께 읽는 성경	6 성경이 말하는 기적(奇蹟)에 대하여
News & Views	11 직장사목팀 행사 및 소식
전례와 생활	12 미사 바로 알기 (6) - 경청과 응답 16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교회의 가르침	20 생태적 회심 24 순교 복자 윤지충과 권상연
신앙과 삶	30 참된 성소를 위한 바램
듣다 읽다 보다	34 고전 음악을 듣다 40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46 신앙인의 눈으로 읽는 고전 문학 52 진료실에서 바라보는 세상이야기 56 그림으로 만나는 성인이야기



THE COVER

최후의 만찬(마르 14,17-21)
서울대교구 사제평생교육원 소장



하느님을 찬송하라

출처 : 서울대학교 사제평생교육원 소장

많은 일이 있었던 3월이 지나고 잔인한 달,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칩(3월5일) 무렵부터 시작된 산불이 백두대간을 할퀴고 간 자리에 남은 것은 온갖 생명의 피 울음과 한숨뿐입니다. 절망과 고통의 먹구름은 푸른 하늘을 가린 연기과 재보다 한결 더 짙습니다. 타버린 집과 조상의 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애도조차 받지 못하는 짐승들의 죽음, 그리고 연록 빛 새싹을 막 밀어 올리려던 찰라 화마에 삼켜져 재가 된 식물들의 신음소리가 아프게 다가

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을 들뜨게 만들었던 대통령 선거(3월 9일)도 끝이 났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 사회가 많이 분열되었습니다. 비방과 음해, 조롱과 노골적인 혐오의 표현들이 불꽃이 튀듯 사방으로 날아다녔습니다. 이제 경쟁의 마당에서 서로에게 던져졌던 날 선 말들과 감정들을 거둬들여야 할 때입니다.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증오하는 일들도 그만두어야 합니다. 광장의 열기가 가신 후에 할 일은 쟁론(諍論)의 자리에 남겨진 쓰

레기와 돌들을 치우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성숙의 자리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사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먼 곳에 있기에 전쟁을 실감하기 어렵지만 이미 많은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러시아 군인들,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민간인들의 피가 땅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머무시는 땅이 사람들의 피로 물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출신 운동선수들도 운동복을 벗고 군복으로 갈아입고 전투에 나서고 있고,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악기를 내려놓고 자기들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었습니다. 이미 많은 이들이 전투 중에 사망했습니다.

거기다가 오미크론의 대대적인 확산으로 인하여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60만 명 이상이 발생하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가 정점을 찍고 이제 하강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만 이래저래 암울한 세월입니다.

4월, 우리는 성주간과 예수 부활 대축일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은 복음을 떠받치고 있는 두

기둥입니다. 죽음 없이 부활 없고, 십자가 없이 영광 없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에서의 희생은 미완성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성주간의 절정이자 예수 부활의 시작인 부활성야가 올해는 4월 16일입니다. 그렇습니다. 8년 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모든 일의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현실을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 안에서 다시 보고 듣고 경험합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 몸의 상처를 통하여 우리의 역사와 사회, 종교와 신앙을 새롭게 해석하여 제공합니다. 이 사명은 수난의 시간과 죽음의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시작합니다. 이때를 피해서는, 이곳을 거치지 않고서는, 부활의 새 삶과 교회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 시간과 공간의 역사는 멀게는 1960년 4.19혁명이라는 역사의 현장이며, 8년 전 4월에 벌어졌던 세월호 참사라는 여전히 애끓는 슬픔의 기억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이 기억과 현장에서 ‘비롯하여’ 두려움 없이 다시 일어섭니다. 여기서 교회가 섭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신우식 신학교

서울대학교 직장사목팀 본부장

성경이 말하는 기적(奇蹟)에 대하여

허영엽 마티아 신부_ 서울대학교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매주 성경을 읽어봅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본문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필사해봅시다.

1. 기적이란 무엇인가?

⋮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세요

사전에서 기적(奇蹟)을 찾아보면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 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불가사의한 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기적을 초자연적인 계시(啓示)라고 말합니다. 계시는 ‘드러나다’, ‘나타나다’, ‘열어 밝히다’(revelare)라는 동사에서 유래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하느님을 알 수 없으니 하느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이해합니다.

어떤 이들은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기적은 무슨 기적이 있나? 기적은 사실 어떤 목적을 지닌 이들이 의지가 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만하는 것’이라며 ‘기적은 없다’고 단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이 인간적인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면 기적을 간절하게 원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됩니다. “내가 그 큰 사고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은 기적이 분명해.” 이러한 증언은 다른 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자신만의 특별한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좌신부 때 암 투병으로 생이 얼마 안 남은 형제님에게 병자성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은 ‘이 성사로 내가 더 살기보다 고통이 없어지기를 청한다’고 했습니다. 병자성

사를 드린 후 석 달 후에 그 형제의 장례미사를 주례했습니다. 그때 자매님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자성사를 받은 후 정말 고통 없이 잘 지내다가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 기적일까요?

교회 내 성인들의 빛나는 업적 안에서 볼 수 있는 기적들은 우리를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하느님께 자신의 마음을 닫는다면 기적의 증거를 거절할 것입니다(요한 5,36). 복음은 이러한 마음 자세를 ‘기적에 선행하는 신앙’이라 보고 있습니다(마르 5,36; 9,23). 즉 믿음이 있어야 신앙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세기의 근대 과학은 기적을 자연법칙으로 환원시켜 설명하고, 19세기의 합리주의는 이를 신화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제 1차 바티칸 공의회는 하느님의 계시가 성령에 의한 내적 도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도 드러난다고 분명하게 선포하였으며, 비오 12세는 기적이 모든 시대의 모든 지성에 부합될 수 있다고(1910년) 하였습니다.

2. 구약성경을 통해 본 기적의 역사성

⋮

탈출 7장~13장을 읽어보세요

구약성경에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생애, 그리고 모세 계약의 재건자들인 엘리야와 엘리사의 생애 동안에 일어난 기적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집트의 열 가지 재앙, 사막에서의 기적들, 약속된 땅의 정복에 관한 전승적 이야기들은 하느님의 초월성과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보호해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여호 24,17).

구약성경에서 기적은 하느님의 심부름꾼이 선포한 하느님 말

씀을 그대로 증거하므로 말씀과 연관되고 종속해 있는 기적(표징)이며, 기적은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보여줍니다. 이집트의 열 가지 재앙, 사막에서 일어난 기적들, 가나안 땅의 정복에 관한 전승 역시 세월이 흐름에 따라 점점 덧붙여진 부분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분명한 것은 역사성을 지닙니다. 기적 이야기들을 기록한 성경 저자들은 당대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익숙한 문학 유형을 이용했습니다. 과거 선조부터 내려오는 여러 전승들을 나름대로 집대성했고 구전들을 인용했지만, 언제나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하느님과 관계된 종교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선택된 백성의 초창기부터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보호자로 현존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여호 24,17). 기적은 효력 있는 신적 표징이며 하느님의 계시이며, 신적 활동이 효력 있다는 표징이 됩니다. 즉 기적은 인간이 알아볼 수 있는 ‘표징’이며 ‘상징’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언자 자신도 표징이 될 수 있습니다. 예언자의 생활 자체로 자신의 활약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거나 희생이나 순교 등으로 하느님의 뜻과 말씀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적적인 표징은 하느님의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느님의 심부름꾼이 선포한 구원을 구체적인 행동으로써 제시해 주며, 이 심부름꾼들을 주님의 정통적인 파견자들로 믿게 해주기 때문입니다(탈출 4,1-5). 기적이 하느님 말씀을 근거로 한다는 사실은, 참된 기적을 마술사와 거짓 예언자가 행한 속임수로부터 구별하게 해줍니다(탈출 7,12 이하). 전달된 말씀의 가치는 특히 치유자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경우(1열왕 18,27-28.36-37), 기적의 진위를 결정짓는 첫째 요소는 표징이 됩니다(신명 13,2-6). 따라서 기적은 그것이 일단 말씀에 의하여 판단된 다음에야 비로소 말씀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집트에서의 탈출 때 하느님께서 당신 백

성을 해방하시기 위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과 하느님의 말씀이 지닌 힘을 드러내 주는 새로운 탈출을 들 수 있습니다(이사 55,11.13).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업적을 의미합니다. 기적은 하느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며(시편 86,10), 그분을 그것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탈출 15,1.7) 당신의 기록함을 반영하십니다(탈출 15,11). 하느님의 능력은 역사 안에서 결국 죄인들을 멸망하게 합니다(신명 7,17-20).

3. 기적과 신앙의 관계

기적은 놀라움을 불러일으키는 일 이외에도,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한 기적은 신앙을 수반하는 신뢰심, 감사하는 마음, 기억할 줄 아는 자세, 겸손, 순명,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희망 등을 아울러 불러일으켜 줍니다. 그 반면에 파라오처럼(탈출 7,13 이하) 하느님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을 한층 더 굳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알고 오직 그분께만 의지하는 이에게는, 그 기적들이 신적 사랑의 능력에 넘치는 업적의 표가 되며, 하느님이 보내신 자의 사명에 대한 인준의 표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러한 믿음의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통하여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했던 것, 즉 상속자의 출생을 얻었던 것입니다(창세 15,6; 로마 4,18-22). 이 신앙이 기적적인 잉태의 통보를 받으신 마리아에게 생기를 주었습니다(루카 1,45). 이와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부과한 사막에서의 시험들에 반항하였을 때, 그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신앙이 부족했습니다(시편 78,32). 아하즈는 기적의 하느님보다도 동맹군에 더 의지함으로써 신앙의 결핍을 보여 주었습니다(이사 7,12). 그리고 즈가리아는 자기의 의심으로 말미암아 비슷한 신앙 결핍을 드러내

보였습니다(루카 1,18-20). 이 모든 경우, 그들은 그들 위에 미치는 하느님의 지배권을 잊어버리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으며 그분의 말씀을 의심한다. 즉 그들은 기적적인 일들을 결코 하느님의 참된 선물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또 신적 능력의 표징이라고 인정하지도 않는다.

4. 예수님의 생애 안에서의 기적

루카 복음 9장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기적들을 통해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자신을 들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과 당신 안에 육화한 하느님 나라의 복음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이들로 하여금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묻도록 유도하셨습니다(마태 8,27). 복음은 회개와 신앙에 의하여 받아들여지고(마르 1,15), 기적은 회개와 신앙을 일깨워 줍니다. 그러나 믿기 위하여 그분의 기적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불완전한 믿음입니다(요한 10,38). 예를 들어 ‘이런 표징을 주면 나는 당신을 믿겠다’ 하는 태도는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새로운 탈출기의 정점인 부활의 표징(요한 13,1)은 교회를 설정하였고 구원의 완성인 죽은 이들의 부활을 선포하였습니다(1코린 15,20).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활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들입니다. 하느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에서 예수님은 수난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만 본다면 구원으로 가는 길에 겪어야 하는 이 수난과 죽음은 큰 걸림돌이 됩니다(마르 15,31-32). 부활은 신앙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직접 체험하고 난 후에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마르 16,11-14).

가톨릭 직장인 후원금 안내



- 1. 개인 후원: 1구좌 당 70,000원
- 2. 교우회 후원: 1구좌 당 300,000원 (월보 지면에 광고 게재 가능)
- 3.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501-784447, 예금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세요.)
- 4. 문의: 서울대교구 직장사목팀 02-727-2078, 010-4799-2078 / gikjang@catholic.or.kr



* 단체 후원: 성골롬반외방선교회

2022년 직장공동체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바쁜 일상과 업무에 쫓기는 직장인들과 직장공동체의 활성화 및 복음화를 위한 목적으로 예비신자 교리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비자 교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직장공동체는 직장사목팀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례성사: 2022. 11. 20(주일), 13:30

주례: 노우식 스테파노 신부 외 직장사목팀 사제단

교리기간	4.18(월)~11.11(토) (중간 모임: 6/11(토), 9/3(토), 자세한 일정은 추후 알림)
참고피정	2022. 11. 12(토), 09:30~16:00
교리방법	애드위드(edwith)을 이용한 온라인 교리
교육비	50,000원
접수마감	4. 1(금) 17:00
모집인원	선착순 70명
문의	02-727-2078 / 010-4799-2078

미사 바로 알기 (6) - 경청과 응답

전호엽 프란치스코 신부_ 사제평생교육원 부원장

하느님과 교회 공동체는 말씀 전례의 대화 구조 안에서 만남과 통교를 이루어갑니다. 말씀에 대한 공동체의 응답과 신앙고백, 보편지향기도는 교회가 하느님과 능동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전례 안에서 공동체는 들려오는 말씀의 경청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다시금 멀어진 하느님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공동체의 화답

제1독서가 선포된 후 공동체는 화답송으로 하느님께 응답합니다. 대개 시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화답 시편’이라고도 불리는 화답송을 통해, 교회 공동체는 감사와 찬양으로 말씀에 화답합니다. 주례자나 선창자가 먼저 노래하면 공동체는 말씀으로 들려오는 하느님의 현존 앞에 경탄과 기쁨으로 응답합니다. 첫째 독사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교회는 시편으로 합당한 찬미의 기도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느님 앞에 모인 교회 공동체는 구경꾼이 아니라 전례 안에서 경청하고 소리를 내며 표현하는 능동적 참여자입니다.

말씀 전례의 정점인 복음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책이지만, 모든 성경 가운데, 특별히 신약성경 중에서도 복음서가 가장 뛰어난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는 우리의 구원자, 사람

이 되신 말씀의 삶과 가르침에 관한 으뜸가는 증언이기 때문입니다(계시헌장 18항). 이 복음의 중요성 때문에 교회는 복음을 말씀 전례의 정점에 배치하고 더 특별한 공경을 표현합니다. 복음이 선포되기 전 모든 신자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기쁨과 환호로 복음환호송을 노래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라”는 의미의 히브리말 “알렐루야”가 울려 퍼지는 동안 제단에서는 「복음집」을 들고 독서대로 향하는 행렬이 시작됩니다. 촛불을 켜 들고 향을 피우며 복음서에 경건하게 절을 하는 모든 행위는 「복음집」에 존경과 공경을 드리는 표현입니다(미사경본 총지침 60항 참조).

복음은 전례 전통에 따라 성품을 받은 부제나 혹은 사제가 선포합니다. 선포자는 복음 봉독 전에 인사한 다음(“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 함께”) 복음서의 제목을 알리고(“...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복음서와 이마와 입술, 가슴에 차례로 작은 십자 표시를 합니다. 11세기 이후에 나타나 전례 안에서 이어오는 이 십자 표시를 통해 복음을 듣는 이들은 정신과 입술과 마음에 말씀이 항상 머물러 주시기를 청합니다.

말씀 선포의 연장인 강론

성경 독서는 단순히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에 담긴 신비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리스도교 삶의 규범을 실생활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강론을 하던 관습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성경 독서를 해설하는 전례 관습의 뿌리는 고대 유다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다교 회당에서처럼 당신의 고향에서 말씀을 풀이해주셨고(루카 4,18-30), 갈릴래아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마르 1,21; 루카 4,15).

강론은 말씀 선포의 연장선입니다. 강론의 목적은 하느님 말씀의 선포로 성찬 전례와 함께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 이루어진 하느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려는 것입니다(전례헌장 35항 참조). 말씀을 설명하여 신자 공동체가 이어지는 성찬례 거행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끄는 중요성 때

문에 강론은 서품받은 교역자(주교, 사제, 부제)만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처럼 서품받은 이들에게 복음과 강론을 듣는 것은, 복음이 가리고 있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사도로부터 이어받은 신앙의 권위’ 아래서 읽고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믿음의 고백

신경이라고도 부르는 신앙고백은 초기 교회에서부터 고백했던 신앙의 요약입니다. 5세기 후반에 동방 교회에서 먼저 도입된 신경은 점차 라틴교회에 퍼져 11세기 초에는 로마 전례에 도입됩니다. 세례 때에 예비자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용도로 읊어지던 신경은 이교에 반하여 올바른 교리를 확인하는 역할로도 사용됩니다. 오늘날 전례 안에서는, 이단을 거슬러 그리스도교 신앙을 확고하게 하려 했던 시대적 배경에서 생겨나 비교적 상세한 형태를 띤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경’과 보다 단순하고 일목요연하게 신앙의 골자가 되는 조항들로 구성된 ‘사도신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신앙고백을 통해 우리는 독서와 강론에서 들은 하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응답하며, 성찬 전례로 신앙의 신비를 거행하기 전에, 교회가 승인한 고백문으로 신앙의 규범들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게 됩니다(미사경본 총지침 67항 참조).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라는 고백은 단순한 확신을 넘어서 우리 자신과 모든 삶을 하느님께 맡겨 드림을 의미합니다. 즉 지성적 확신과 더불어 인격적 의탁으로 온전히 하느님께로 향한다는 고백이며 표현입니다.

공동체의 기도

신앙고백 후에 우리는 바람과 간청과 감사를 기도에 담아 하느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는 초세기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전례 안에서 각자가 기도에 참여하고 있지만, 특별히 보편지향기도를 통해 우리는 더 직접적이고 능동적으로 전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하느님 말씀

의 빛을 받아 그 말씀에 응답하면서 관례에 따라, 온 교회와 지역 공동체를 위하여,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그리고 기도가 필요한 특정 이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독서목록 지침 30항 참조). 보편지향기도는 이름처럼 개인의 기도라기보다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형식화된 기도문이 아닌 신앙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향하고 청해야 할 것을 바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기도를 함께 바치며 신자들은 말씀 전례의 열매로 각자의 마음을 채우고 더 합당하게 성찬 전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의 전례는 보편지향기도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말씀의 전례 안에서 신자들은 성경을 통해 선포되고, 강론을 통해 해설되며, 신경을 통해 요약되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느님 말씀으로 양육된 신자들은 이제 교회와 세상의 필요를 위한 기도로 응답합니다. 전례 안에서 하느님을 만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밀접한 관계를 이루어갑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바라고 선택해 나갑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세상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선택에 동참해 나가는 우리는 점차 전례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듭납니다. 그리고 비로소 세상의 구원을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주님의 파스카 성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됩니다. ☪

‘성인’ 이름을 알면 영성이 보인다

성녀 리드비나

St. Lidwina (축일: 4월 14일)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_작은형제회

네덜란드를 떠올리면 흔히 ‘풍차와 튜립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진 것이 하이네켄(Heineken) 맥주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한 아이스 스케이팅이 유명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성녀 리드비나는 네덜란드 성녀이며, 스케이트와 인연이 깊은 성녀입니다. 이 성녀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는 유럽대륙의 북서쪽에 위치합니다. 매우 추울 것으로 생각하지만 멕시코 난류의 영향으로 기후는 온화한 편이며, 습하기도 하고, 강력한 서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이 바람으로 풍차를 돌려 왔습니다. 특히 겨울에 습하고 으슬으슬 추운 유럽의 기후 때문에, 그리고 겨울에 영하 14-18도까지 내려가는 강추위 때문에 쉽게 냉동창고처럼 온 나라가 변화되기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 네덜란드 전역 온 도시의 운하가 얼게 되면, ‘엘프 스테덴도흐트(Elfstedentocht)’라는 빙상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네덜란드 프리슬란트주의 강과 운하를 통해 총 11개의 도시를 일주하는 스피드 스케이팅 대회로, 18세기부터 시작된 북부 네덜란드의 전통적 행사입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강추위로 이곳이 천연빙상장이 되는 것입니다. 약 200km의 코스를 끝까지 달린 사람들에게 기념 메달을 수여하며, 대회 우승자에게는 우승컵과 함께 엄청난 상금을 받게 됩니다. 네덜란드에서 스케이트는 국민 스포츠이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스케이트를 탑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는 스케이트를 누구나, 동네마다, 연령에 상



관없이 타다 보니, 네덜란드가 세계적으로도 스케이팅 분야에서 선두를 지키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리드비나 성녀(1380-1433)도 네덜란드 스텐담 출생의 소녀입니다. 그래서 그녀 이름의 어원에는 네덜란드어/고대 독일어의 발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원래 영어식 표기인 리드비나(Lidwina)는 네덜란드어/독일어의 루드비나(Ludwina)의 변화형입니다. 이는 다시 남성형인 루드빈(Ludwin)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루드빈은 로이트 빈(Leutwin)이라는 독일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로이트(Leut)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빈(win)은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리드비나/루드비나’라는 세례명의 뜻은, 곧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친절하게 다가가는 벗이 되는 여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특별히 성녀 리드비나가 겪었던 생애와 기적들을 살펴보면, 그녀가 어떤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벗’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성녀 리드비나는 16세가 되던 어느 겨울에 또래 여자아이들과 함께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졌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졌고, 들것에 실려서 집에 옮겨질 정도로 크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침대에 누워서 지내게 되었는데, 몸의 일부가 굳어지고 마비가 시작되었으며, 상처 부위가 덧나서 썩어들어가는 등의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에 그녀는 한 번도 완쾌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녀는 자신의 대부분 시간을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으로, 자신의 고통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성인들의 위로를 받거나 천국과 지옥을 환시로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녀의 머리 위에 성광이 나타난 기적도 있었으며,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그녀를 찾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도 자신의 질병 때문에 계속해서 울기만 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자신의 고통을 받아들일 자세가 생기게 되었고, 그런 고통이 이제 자신이 하느님으로부터 특별한 신적 사랑을 받는 증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무한한 신뢰를 드리며, 죄인들을 위한 희생과 보속으로 고통을 봉헌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굴의 성녀로 기억되었던 것입니다.

네덜란드 스킨담(Schiedam)의 리드비나 성녀는 53세에 선종하였는데, 끊임없는 단식과 자신의 신비체험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1859년에 스킨담에 그녀의 이름을 딴 성당이 세워졌고, 1890년에 레오 13세 교황은 그녀를 시성하였습니다. 이후에 그녀는 병상인들의 주보성인이며, 만성질환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의 주보로 기억되며 공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평생 몸소 보여준 성녀였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소명, 평생 십자가를 지고서 그리스도의 수난에 참여하는 부르심을 살아간 특별한 영혼이었습니다. 수많은 죄인을 위한 고통의 봉헌으로 하느님의 자비를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녀를 보면서 어떤 경우에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하느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하고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질병과 재난마저도 은총의 현관으로 쓰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무능하다고 학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문제에 매몰되어 사는 신앙인이 되지 맙시다. 오히려 리드비나처럼 고통받는 사람들, 포기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벗’으로 살아가는 소명을 이루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그것이 리드비나를 세례명으로 삼는 이들이 놓치지 말아야 하는 생명의 끈입니다. ☪

“만약에 내가 성모송을 단 한 번만이라도 바쳐 치유된다고 하더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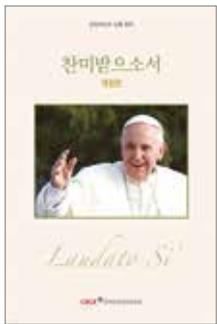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녀 리드비나>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생태적 회심: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 해설

생태적 회심

송영민 아우구스티노 신부,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찬미받으소서 | 프란치스코 교황 저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2015년 9월 5일

지난 두 달 동안 이 지면을 통해 살펴본 생태 환경 문제는 사실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공동의 집 지구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쩌면 식상할 정도로 미디어를 통해 자주 접하고 있지요. 그 ‘불편한 진실’의 책임이 결국 우리 인간에게 있고,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압니다. 우리의 노력을 뒷받침할 기술도 이미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변화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찬미받으소서」 회칙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안타까워하시며 근본적인 변화를 호소하십니다.

미약한 반응

오늘날 생태 위기는 심각하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구 공동체가 직면한 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풍요로움만 추구하는 개인주의 경향 속에서 “무관심의 세계화”(52항)가 확산되고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자주 들으면서도 자신에게 당장 피해가 없으니, 자기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지요. 어떤 이들은 생태 위기 자체를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몇몇 과학자들의 주장을 근거로 기후변화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날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멸종도 인간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소수의 과학자들이 연구 자금을 제공하는 측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놓는다거나 불리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인데도, 그들이 생산한 가짜 뉴스를 믿고 가장 객관적인 과학적 사실마저 부정합니다.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다고 교황님은 애통해하시지요. “신심이 깊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부는 현실주의와 실용주의를 내세워 환경에 대한 관심을 우습게 여기고 있음도 인정해야 합니다”(217항).

물론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적인 일에는 여전히 소극적으로 머뭇니다. 한마디로, “별 문제 아냐. 그냥 살았던 대로 살자(Business as Usual)”는 입장입니다. 이제껏 그랬듯이 과학자들과 정치인들이 과학 기술이나 정책으로 다 해결할 것이라 생각하며, 걱정은 되지만 잘 해결될 것이라 낙관하는 것이지요. 회칙은 이러한 모습을 지적합니다. “사람들이 생태계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는 있지만 나쁜 소비 습관은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습관은 사라지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55항).

생태 위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갖게 되어도 회의적인 반응에 머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대한 문제 앞에서 나 혼자 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느끼며 무기력에 빠지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소용없다고 주장하거나 “왜 나만 손해를 봐야 돼?” 하며 행동 변화에 나서지 않습니다. 「찬미받으소서」는 이러한 회피적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합니다. “이는 악행들을 알아채고 인식하지 않으려 하고, 중요한 결정을 뒤로 미루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는 것과 같은 인간의 자기 파괴적인 악행들을 조장하는 길입니다”(59항).

내적 위기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면서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현실을 더 깊이 살펴볼수록 저는 생태 위기의 뿌리가 우리 마음속에 자라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현재 직면한 생태 환경의 위기는 경제, 사회, 정치적 문제임에 앞서 근본적으로 ‘내적 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환경 파괴와 인간적 윤리적 타락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56항)에 주목하시고, “환경 문제의 윤리적 영적 근원”(9항)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적인 광야가 엄청나게 넓어져서 세계의 외적인 광야가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217항). 내적인 광야와 외적인 광야의 크기가 서로 비례한다는 교황님의 말씀처럼, 지구 생태계의 황폐화는 우리 내적 문제의 외적 징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생태 위기를 단순히 우리 외부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구가 병이 난 것은 우리 마음과 의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근본적 원인에 대한 성찰은 소홀히 한 채 정부의 규제나 새로운 기술의 적용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을 해결하려 합니다. 물론 환경 정책을 개선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지는 않지만, 우리 의식의 변화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대책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했듯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은 우리가 그 문제들을 발생시킨 때에 갖고 있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생태적 회심

지구적 위기가 요청하는 내적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찬미받으소서」 회칙은 ‘생태적 회심’을 강조합니다. 문제에 대한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해결책보다는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마치 불난 집에 불을 끄는 것처럼 빠른 해결 방법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이 진정한 발전인지 성찰하며 의식의 전환을 이루자는 뜻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생태적 회심은 ‘행위(doing)’의 문제를 넘어 ‘존재(being)’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재활용을 잘하자는 단편적인 실천에 그치지 않고, 우리 자신과, 지구 공동체와, 하느님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러한 생태적 회심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병들어가는 지구 공동체를 향해 슬퍼하고 아파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생태 담론은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려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진 경우가 많은데, 우리에게 진정 ‘아파하는 마음’이 있는지 먼저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멸종되어가고 기후변화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난민이 되는 현실은 단순히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비극’입니다. ‘문제다’ 하기 이전에, ‘누가 그들을 위해 울고 있는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생태 위기가 가져온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에 먼저 이 위기 속에서 고통당하는 존재들을 위해 깊이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생태적 회심을 향한 첫걸음은 “우리의 공동의 집이 심하게 손상되었다는 현실을 직시”(61항)하고 “그것을 기꺼이 우리 자신의 고통으로 삼아”(19항) 주님께 ‘슬퍼하는 은총’을 청하는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순교 복자 윤지충과 권상연

조한건 프란치스코 신부,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지난 시간 한국의 첫 순교자 그룹 김범우 토마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엔 함께 살펴보는 순교자는 지난 2014년 시복된 대표 복자 윤지충(尹持忠, 1759-1791) 바오로와 같은 날 순교한 권상연(權尙然, 1751-1791) 야고보, 두 분입니다.

가성직제도에 대한 의문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북경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이승훈은 그동안 무지(無知)에 의해서 거행하던 성사 집행을 중지하고, 성직자영입 운동을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한문 서학서의 연구를 통해서 미사와 성사를 하기 위해서는 서품을 받은 사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경에서 온 구베아 주교의 편지에는 첫째, 성직자 없는 한국교회에서 “상등통회”(上等痛悔, 진심으로 통회하여 뉘우치는 것 자체로 죄의 용서가 된다는 교회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구원을 얻을 것과 둘째, 조상제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답서는 당시 양반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교 사회는 가부장제의 전통 유교를 고수하면서 제사를 통해 조상을 기억하고 가문의 영광을 확인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1791년 진산에서 신주(神主)를 훼손하고 제사를 거행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윤지충은 윤선도(尹善道, 1587-1671)의 6대손으로 정약용 형제들과 고종사촌 간이었습니다. 또한 윤지충의 외가는 안동 권씨 가문이었습니다.

진산군에는 외삼촌의 아들 권상연(權尙然)이 살고 있었는데, 사건이 일어난 해에 윤지충은 32살이었고, 권상연은 41살이었습니다. 다블뤼 주교의 기록에 따르면, 윤지충은 1784년 서울 김범우의 집에서 서학서(천주실의, 칠극)를 구경한 뒤, 친척인 정약용 형제들과 교류하면서 천주교에 입교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진산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791년 신해년 가을 진산군 일대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지충이라는 양반이 모친상을 당했는데, 상복(喪服)도 입지 않고, 조문(弔問)도 받지 않았으며, 신주를 불태우고 제사를 폐지하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산 군수 신사원(申史源)은 당시 좌의정 채제공(蔡濟恭, 1720-1799)에게 편지를 보내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지만, 빠른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천주교를 공격하던 흥낙안이라는 인물이 채제공에게 긴 편지를 보내어 엄히 다스리기를 청했습니다. 진산 군수가 윤지충을 신문하면서 별소득이 없자, 전라감사 정민시(鄭民始, 1745-1800)의 감영으로 옮겨졌습니다. 윤지충에 대한 강도 높은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감사 : 너는 신주들을 모두 있는 그대로, 아니면 그것들을 불태운 후에 문었느냐? 그것들을 불태웠는지 아니면 단지 묻기만 했는지가 다소간 네 죄의 경중을 정한다.

대답 : 저는 그것들을 불태웠고, 그리고 나서 문었습니다.

감사 : 네가 그것들을 네 부모같이 공경했다면, 신주를 묻는 것은 그나마 목인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것들을 불태울 수 있다는 말이나?

대답 : 만약 제가 그것이 제 부모님이라 믿었다면, 어떻게 그것들을 불태울 결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신주에) 부모님에 대한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것들을 불태웠으며, 그것들을 땅에 묻든 불태우든 여하튼 먼지로 되돌아가니, 거기에 심각함이 더하고 덜한 것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신문기록은 당시에 “죄인 지충 일기”라는 한글 제목으로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윤지충이 한문으로 기록한 옥중수기를 한글로 번역하여 신자들에게 통용되고 있었던 자료입니다. 현재 한문과 한글로는 전해지지 않지만, 다블뤼 주교가 불어로 번역한 자료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문을 통해서 윤지충과 권상연은 사형을 언도받게 되었습니다. 『정조실록』에는 윤지충이 재판에서 증언했던 공술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천주를 큰 부모로 여기는 이상 천주의 명을 따르지 않는 것은 결코 공경하고 높이는 뜻이 못됩니다. 그런데 사대부 집안의 목주(木主)는 천주교에서 금하는 것이니, 차라리 사대부에게 죄를 얻을지언정 천주에게 죄를 얻고 싶지는 않았습시다. 그래서 결국 집 안에 땅을 파고 신주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 앞에 술과 음식을 올리는 것도 천주교에서 금지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서인(庶人)들이 신주를 세우지 않는 것은 나라에서 엄히 금지하는 일이 없고, 근궁한 선비가 제향을 차리지 못하는 것도 엄하게 막는 예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주도 세우지 않고 제향도 차리지 않았던 것인데, 이는 단지 천주의 가르침을 위한 것일 뿐으로 나라의 금법을 범한 일은 아닌 듯합니다.”(『정조실록』 정조 15년 11월 7일, 윤지충 공술 중에서)

이와 같은 윤지충의 주장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천주교에서 제사와 위패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 둘째, 천주교의 영혼론에 입각할 때 신주와 제사는 모두 미신이고 헛된 것이라는 점, 셋째, 신주를 세우지 않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이 사대부의 예법을 위반하기는 하지만 조선의

국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윤지충은 북경에서 전해지는 천주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조상제사를 금지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로 만들어 부모의 이름이 적힌 목주(木主)는 결코 부모를 대신할 수 없고, 천주교의 영혼론을 통해서 육신과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교리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양반의 신분으로서 예법을 어기기는 했지만, 그것이 나라의 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예치(禮治)의 나라인 조선에서 예교주의 국가질서를 상대화시키는 논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주(神主)란 죽은 사람의 친속 관계, 관직, 봉사자(奉祀子), 죽은 사람의 이름 등을 적은 두 조각의 나무 패를 가리킵니다. 이 신주에 받침대를 만들어 주독(主櫃)이라는 함에 넣어서 사당의 감실(龕室)에 모셔둡니다. 오늘날 감실은 바로 성체가 모셔지는 함을 가리키도록 바뀌었는데, 이것도 용어의 토착화 현상 중에 대표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지충과 권상연을 극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상소가 30건 이상 올라왔고, 채제공마저도 정조에게 사형을 건의하자 평소 남인에게 너그러웠던 국왕도 사형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둘은 전주 풍남문에서 1791년 12월 8일에 사형을 당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양반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신해 진산사건은 중국의 의례 논쟁을 거쳐 조상제사 금지조치가 생겨났고, 이러한 규정이 한국교회에 넘어오면서, 기나긴 한국교회 박해의 역사에서 그 첫머리를 장식한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윤지충과 권상연은 명확한 자기 결단을 통해 천주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의미에서 공식적으로 조선교회의 첫 순교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순교 후 꼭 230년 만인 2021년에 복자의 묘가 발굴되었습니다.

윤지충 바오로의 묘를 가리키는 지석 사발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乾隆 五十七年 壬子 十月 十二日

건륭 57년 임자(1792)년 10월 12일(양력 11월 25일)

成均生員 尹公之墓 俗名持忠 聖名保祿 字禹庸 己卯生

성균관생원 윤지충 공의 묘 세속명 지충 성명은 보록(바오로)

자는 우용, 기묘(1759)생

權公墓在左 本海南

권상연 공의 묘는 (이 묘의) 좌측에 있는데, 그의 본은 해남이다.

이 묘의 옆에서 발굴된 권상연의 묘에도 사발지석이 발견되었는데,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乾隆 五十七年 壬子 十月 十二日

건륭 57년 임자(1792)년 10월 12일(양력 11월 25일)

學生 權公之墓 諱尙然 字景參 辛未生 本安東

유학 학생인 권상연의 묘이며, 이름은 상연, 자는 경삼,

신미(1751)생, 본은 안동이다.

尹公墓在右

윤지충의 묘가 (이 묘의) 우측에 있다.

묘의 주인을 알려주는 사발지석에 서로가 좌측과 우측에 있음을 알려준 것은 아마도 양쪽 다 모두 찾으라는 표시 같기도 하지만, 어쩌면 한국의 첫 순교 복자가 좌·우측 양쪽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지지해 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두 분의 순교 복자를 생각하며, 이 두 순교자를 고이 모셨던 초기 한국교회 신자들의 용덕을 기립니다. 🙏



평신도 영성강좌

예수님께 인생을 묻다

2022년 5월 10일 ~ 6월 14일 (6주)

화요일 오전 10시 - 오후 12시

zoom 온라인 실시간

*강사 현재우 에드몬드 박사(한국CLC) 서강대, 수원 가톨릭대 강사

1강	5/10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2강	5/17	예수님께 인생을 묻다
3강	5/24	오병이어, 사랑의 힘
4강	5/31	공동체로 초대받은 우리
5강	6/7	세상으로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
6강	6/14	사랑의 질서와 영적훈련

*강좌 일정은 교구지침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강료 8만원 청년할인 50%(40세 미만)

문의/접수 02-333-9898 한국 CLC

참된 성소를 위한 바람

가톨릭 직장인 모임교재팀

1. 주님을 초대한다.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 삶을 바라본다.

바오로는 최근에 후보에 실린 사제, 부제 서품식 공지를 보면서 어느 분당 출신이 많은지 눈여겨보게 되었다. 예전보다는 새사제 숫자가 현격히 감소했음을 느끼게 되었다.

세속화와 개인화의 길을 걷는 사회 분위기 영향으로 사제를 지망하는 신학생 수가 매년 감소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수도원 중 절반 이상이 매년 한 명의 입회자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몇 년 전부터 성당에 가도 중고생과 청년들을 보기가 어렵다. 바오로도 학창 시절에 사제직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에, 주님께 자녀들을 봉헌하려고 가정에서 기도 생활과 신앙교육을 열심히 했으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은 자녀들이 각자 위치한 삶의 자리에서 복음에 뜻을 실천하며 성가정을 일궈나가며 사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를 바치고 있다.

Question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소(聖召)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3. 하느님께 귀를 기울인다.

1) 성경 본문을 읽고 함께 나눈다.

루카복음 5장 10절부터 11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물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2) 성서본문 중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외친 후 묵상한다.

3)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대한 각자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봅시다.

4. 교회의 문헌을 읽는다.

사제는 ‘영원하신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 하느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뽑힌 사람, 즉 주교와 신부를 포함합니다. 부르심으로 선택된 모든 사람은 하느님

과 그분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의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소명과 사명은 성직자는 물론, 수도자와 평신도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성직자와 수도자만 자신의 삶으로 하느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부름을 받고, 선택된 사람입니다. 소명과 사명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을 머리와 마음에 간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서울주보 2022년 1월 30일,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가톨릭 신학5]

5. 실천계획을 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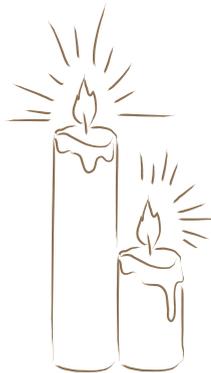
6. 기도나 성가로 모임을 마친다.

자녀를 위한 기도

○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서는 저희에게 귀한 자녀를 주시어
 창조를 이어가게 하셨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길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 주님, 사랑하는 저희 자녀를
 은총으로 보호하시어
 세상 부패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온갖 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Cornerstone



*James Delisco Beeks, Aaron LaVigne and the company of the North American Tour of JESUS CHRIST SUPERSTAR. Photo by Matthew Murphy.

Jesus Christ Superstar (JCS, 1971)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7일간의 행적을 그린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는 1971년 당시 23세에 불과했던 앤드루 로이드 웨버(작곡)와 26세 팀 라이스(작사)에 의해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되었다. 지금까지도 세계 각국에서 끊임없이 공연되고 있는 세기를 초월한 걸작이다.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에 해당하는 시기는 하드 록밴드들이 등장하며 록의 르네상스를 열어가던 시기이자, 록 음악을 추종하는 신세대와 록을 시끄럽기만 한 음악으로 받아들이는 기성 세대간의 갈등이 첨예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러한 시대에 예수를 슈퍼스타, 그 추종자들은 히피로 해석한 록 오페라는 그 형식 자체가 파격이었다. 갯세마네 동산에서 허공을 향해 샷대질을 하며 하느님에게 내가 죽어야 할 이유를 알려달라고 샤우팅하는 예수나, 돈에 눈이 먼 배신자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나서 갈등하는 혁명가이자 예수를 인간적으로 사랑한 불행한 이스카리옷 유다의 운명 등에 조명을 맞추는 JCS는 그 자체로 전통적인 기독교계에서 눈살을 찌푸릴 만한 작품이었다.

공연이 확정되자 1971년 브로드웨이 초연을 반대하고 하루빨리 공연을 중단하라 외치는 피켓들이 극장 근방에서 심심치 않게 보였다고 한다. 런던에서 1972년부터 올라간 공연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유럽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여러 나라로 전파되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무대와 음악에 열광하는 결과를 낳았다.

"예수=슈퍼스타"의 등식은 예수의 스타로서의 자질을 강조하는 장치라 아니라, 대중들에 둘러싸인 슈퍼스타로서의 예수를 강조하는 장치이다. 도저히 통제할 수도 없고 하나로 묶을 수도 없는 대중들 위에 서 있는 슈퍼스타의 위태로움과 고뇌, 그리고 손 쓸 도리 없이 위험해지기도 하는 대중들의 말초적 관심 등을 보여주곤 했던 것이다.

노래 자체가 록, 블루스적인 감성을 질게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 뮤지컬 배우가 아닌 락 계열 보컬리스트들이 유난히 자주 캐스팅되는 작품이기도 하다.

- Gethsemane (I Only Want to Say): 술에 취해 잠든 제자들을 본 예수는 단념한 채로 홀로 갯세마네 동산에서 복음을 전하라 해서 죽을 고생을 해서 교단을 꾸러냈는데, 이제 와서 내가 도대체 왜 죽어야 하는지 신에게 부르짖지만, 결국 체념하고 "당신이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 뜻대로 하소서"라고 울부짖고선 체념해 버린다. 연출과 배우의 해석에 따라 이 곡의 뉘앙스가 많이 달라지기도 한다.

고전 음악을 듣다

엘가 - 고독한 아웃사이더가 꿈꾼 성서의 세계

조병선 바오로_청주대 법학과 교수

우리나라에서 엘가 하면 먼저 비운의 전설적인 여류 첼리스트 자클린 드 프레(Jacqueline du Pré)가 연주하는 엘가의 첼로협주곡이 떠오른다. 아니라면, 장영주가 연주하는 너무도 상냥하고 아름다운 소곡 ‘사랑의 인사 (Salut d’Amour) Op.12’나, 흔히 정중한 공식 행사장에서 자주 연주되는 ‘위풍당당 행진곡(Pomp and Circumstances Marches) Op.39’이 떠오를지도 모르겠다. 방송에서 자주 접하는 유명한 ‘수수께끼 변주곡(Enigma Variation) Op.36’도 그의 작품이다. 그러나 사실 엘가의 작품은 대부분이 종교음악이고, 그의 평생 목표가 신약성서를 음악화하는 것이었다. 엘가는 어떤 음악가보다도 가장 종교음악에 전문화된 음악가로 보아 손색이 없다.

에드워드 엘가(Edward Elgar)는 1857년 영국의 우스터(Worcester)에 태어났다. 우스터는 영국 중부 버밍엄에서 남서쪽으로 48km 떨어진 작은 도시였다. 악기상을 하던 아버지는 우스터 대성당의 오르가니스트를 겸하였고, 이렇듯 어린 엘가는 자연스레 음악적 환경에서 자랐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 엘가를 음악가로 키우지 않으려고 16살 때 그를 법학을 전공하도록 런던으로 보냈지만 실패하고 만다. 이런 연유로 엘가는 한 번도 전문적인 음악교육을 받지 않았다. 더욱이 가톨릭 신자이면서 내성적이었던 엘가는 영국의 기성 음악계에 아무런 연줄이 없는 ‘아웃사이더’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7세기의 헨리 퍼셀(Henry Purcell) 이후 가장 위대한 영국 작곡가가 되었다. 1924년 국왕 에드워드 2세로부터 ‘왕실 작곡가(Master of King’s Music)’ 기사 작위를 받았고, 후에는 남작이 될 정도로 영국의 클래식 음악



에 크게 이바지한 음악가로 평가받았다.

엘가가 살았던 빅토리아-에드워드 시대의 영국은 철저하게 신분 사회(class society)였기에,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태어나 한 번도 정식으로 음악교육을 받지 않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매사에 자신이 없었고 위축되었던 엘가의 성공은 매우 이례적이다. 여기에 하나의 촉매제가 있다면, 엘가의 1889년의 앨리스와의 결혼이었다. 사회적 신분이 높은 고위 육군장성의 딸로 8살 연상의 앨리스는 1886년부터 엘가로부터 피아노 교습을 받다가 사랑에 빠져 부모의 반대에도 결혼을 감행하고, 엘가의 음악 열정을 고취시키는데 전력을 다하였다. 드디어 결혼 10년째, ‘수수께끼 변주곡’(1899)과 ‘제론티우스의 꿈’(The Dream of Gerontius, Op.38, 1900)이 대성공을 거두고, 이제 엘가는 영국을 넘어 전 유럽에 명성을 얻게 되었다. 비록 오페라 합창곡 ‘제론티우스의 꿈’은 가톨릭 추기경의 시에 붙인 음악이라, 국교가 성공회인 영국에서는 신학적 이유로 논란이 되었지만, 독일어로 번역되어 연주되는 등 전 유럽에서 크게 성공을 거두었고, 끝내는 영국에서도 연주회의 단골 메뉴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제 영국을 대표하는 음악가가 된 엘가는 승승장구하였다. 50대에 들어서면서 교향곡 1번 Ab장조 Op.55(1908)과 바이올린 협주곡 b단조



Elgar: Enigma Variations, Pomp & Circumstance Marches Nos. 1 & 2
BBC Symphony Orchestra, Leonard Bernstein

Release Date: 6th Sep 1984
Catalogue No: E4134902
Label: DG
Length: 53 minutes

Op.61(1910)을 연이어 크게 성공시키고, 이어서 지금까지도 가장 유명한 첼로협주곡 e단조 Op.85(1919)를 내놓았다. 처음에는 e단조가 주는 너무도 어두운 색채감 때문에 주저되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대중에게 선호되어 엘가의 대표작이 되었다. 첼로협주곡 초연 5개월 후 엘리스가 세상을 떠났고, 엘가는 어떤 작품도 내지 못하다가 1934년 사망하면서 그의 작품들은 점차 잊혀져갔다. 그런데 1960년대 들어 당시 영국의 LP 레코드 산업의 부흥과 함께 ‘엘가 리바이벌(Elgar Revival)’이 터졌다. 직접적인 계기는 1962년 3월 21일, 금발의 17세 영국 소녀 자클린 드 프레의 BBC 관현악단과의 데뷔곡이었던 엘가의 첼로협주곡이었다. 이 협주곡이 연주되었을 때 과거의 어떤 명 첼리스트도 해내지 못한 정열적인 활의 움직임으로 보여준 엘가 내면의 깊은 심연에 온 영국이 환호하였다. 드 프레가 20살 되던 1965년, LP 레코드의 명가 EMI가 바비롤리 경(Sir Barbirolli)의 지휘 아래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녹음한 엘가의 첼로협주곡은 전무후무한 스탠다드가 되었다(이 LP 초반은 지금도 값이 어마어마하다).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된 드 프레가 1966년 당시 떠오르는 신예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인 바렌보임과 결혼을 발표했을 때 ‘영국의 장미’를 작고 땅딸한 ‘사막의 선인장’(바렌보임이 유태인)이 채어갔다는 기사가 뜰 정도였다. 이스라엘까지 날아가 6일 전쟁의 와중에 유대교 결혼식을 치른 드 프레였다. 그런데 드 프레가 연주 중 자주 활을 떨어뜨리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1973년 미국 뉴욕에서의 4개의 연

Elgar: Symphonies Nos. 1 & 2, In the South & other orchestral works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Sir Adrian Boult

Release Date: 5th Feb 2007
Catalogue No: 3821512
Label: Warner Classics
Series: British Composers
Length: 2 hours 37 minutes

*Gramophone Awards: 1977 Winner - Orchestral



주회 중 마지막 연주를 포기하였다. 치명적인 다발성 경화증이었고, 결국은 1987년 비극적 생을 마감하였다. 그녀의 첼로 ‘다비도프 스트라디바리우스(Davidov Stradivarius)’는 현재 요요마가 사용하고 있다. 요요마의 연주회 앞에서도 자꾸 드 프레가 겹쳐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일까? 런던의 드 프레의 무덤은 ‘골더스 그린 유대인 묘지(Golders Green Jewish Cemetery)’로 지하철역에서 가깝다. 재혼하고 무덤에도 오지 않았다는 바렌보임. 비난은 말자. 슬픔은 각자에게 각자의 무게로 오니까. 필자는 그녀의 무덤 앞에 서서 단지 음악은 영혼의 영역이라는 생각만 한다. 음악은 음표의 기교에 그치지 않기에, 혼을 갈아 넣은 명곡도 있고 명연주도 있다는 것을!

엘가의 평생의 꿈은 신약성서를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엘가가 1882년 구입하여 평생 지녔던 신약성서 제일 뒷장에는 3부로 나누어진 개요가 적혀있다. 그 1부라고 할 수 있는 ‘사도들(The Apostles) Op.49’(1903)은 예수님의 생전 말씀을 음악으로 옮겼고, 2부는 ‘하늘나라(The Kingdom) Op.51’(1906)로 사후의 영원한 세계를 그리고 있다. 모두 오라토리오의 장르에 속하지만, 엘가는 원래 ‘오라토리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였다. 화려한 관현악이 사용되는 것을 꺼렸던 것일까? ‘사도들’을 보면 아주 단순하게 사도들과 막달라 마리아, 천사가 6명의 솔로로 나오고 목관과 금관만이 그들을 뒷받침한다. 성서의 말씀이 음악에 묻힐까 염려한 겸손한 엘

가를 볼 수 있다. 마지막 3부는 ‘마지막 심판(The Last Judgement)’인데 간단한 스케치만 남기고 미완성인 채로 세상을 떠났다. 아마도 엘가는 스스로의 지병으로 중단하기도 했지만, 1920년 평생을 지켜주던 아내 앨리스의 사후에 창작의 기력을 상실하고 그가 죽을 때까지 어떤 작품도 내지 못하였다. 어쩌면 엘가는 과거 헨델이 크게 성공시켰던 오라토리오가, 아니 종교음악 장르 그 자체가, 이제 산업화된 영국 사회에서 영국인들이 점차 흥미를 잃어가는 것이, 영혼 상실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느꼈던 것이 아닐까?

엘가의 출세작의 하나인 ‘제론티우스의 꿈’은 3인의 솔로와 이중 합창에 관현악을 붙인 곡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텍스트가 가톨릭 신학적이라 하여(개신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연옥’이 등장) 버밍엄 페스티벌에서의 초연이 곤경에 처하였던 곡이다. 가사 텍스트가 가톨릭 신학자인 ‘성 뉴먼 추기경(St. Cardinal Newman)’의 시였기 때문이었다. 뉴먼 추기경의 시는 경건한 신자 제론티우스가 죽어가면서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연옥에서 영혼을 정화하고 끝내 하느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엘가는 음악적 흐름에 맞추어 시를 발췌하여 2부로 구성하였다. 1부는 제론티우스가 임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약 35분간 연주되고, 2부는 영혼의 여행으로 ‘꿈(dream)’으로 표현되는데, 60여 분간 연옥을 거쳐 천사와 함께 하는 천상까지의 여행이다. 마지막에 ‘아멘’이 오버랩핑 되면서 끝난다. 엘가는 이 작품의 끝에 마치 바흐가 항상 작품 끝에 써놓았던 헌사 ‘S.D.G. (Soli Deo Gloria)[오직 신께 영광을]을 본떠서 ‘A.M.D.G. (Ad maiorem Dei Gloriam)[신의 위대한 영광에]라는 헌사를 붙였다. 또한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Virgilius)의 시의 한 구절 ‘어째서 죄인이 저리도 더 지독하게 빛을 (살기를) 바라단 말인가(Quae lucis miseris tam dira cupido?)’도 적어놓았다. 시대가 변하여 과거 엘리자베스 여왕의 총애를 받았던 다성음악의 대가 윌리엄 버드(William Byrd, 1543-1623)만큼 신앙으로 곤경에 처한 것은 아니지만, 자칫 버밍엄 뮤직 페스티벌에서 당대 최고의 지휘자 한스 리

Elgar: Violin Concerto & Introduction and Allegro
Nigel Kennedy (violin)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Vernon Handley

Release Date: 4th Feb 2013
Catalogue No: 4332872
Label: Warner Classics
Series: Masters
Length: 68 minutes

*Gramophone Awards: 1985 Recording of the Year
*Gramophone Awards: 1985 Winner - Concerto



히터의 초연이 무산될 뻔하였다. 영국에서는 국교인 성공회를 따르지 않고 과거의 가톨릭을 고집하는 소수를 두고 ‘비국교자(recusant)’라 불렀다. 버드가 든든한 후원자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고 제임스 1세가 즉위하면서 여왕으로부터 하사받았던 토지를 빼앗기는 과정은 필자의 졸저 ‘클래식 법정’에 상세하게 적어놓았다.

현대사회에서 종교는 없어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다. 이런 면에서 음악과 비슷하다. 종교 없이 고귀한 삶을 사는 이도 적지 않고, 음악 없이 다른 데서 위안을 찾는 이도 많다. 그러나 올곧이 종교와 음악의 혼을 불사른 엘가의 고독은 때로는 달콤하게, 때로는 씁쓸하게 우리를 휘감는다. 바이올린 협주곡 b단조가 애련한 사랑의 입자들이 봄바람에 날린다면, 첼로협주곡은 슬픔의 입자가 어둠 속에 내려앉는다. 첼로협주곡 첫 악장 첫 다섯 마디의 독주 첼로를 들어보았는가? 단지 다섯 마디로 우리를 숙연하게 하는 절대 고독은, 마지막 악장 코다에 이르러 ‘e(미)’ 음만이 줄 수 있는 고독과 절망으로 빠져들며 끝난다. 잔잔한 슬픔으로 오히려 우리를 성찰하게 한다. 누군가 절망의 끝에 희망이 있다고 했던가. 엘가의 생애가, 엘가의 음악이 그러하다. 🎻

신앙의 땅, 이스라엘을 거닐다

긴 성지순례의 꿈 - 이스라엘 지중해 북쪽 끝

심연선 소화테레사_ 이스라엘 전문 여행 가이드

아코를 떠나 이스라엘 지중해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코에서 10km 떨어진, 자동차로 약 20분이 소요되는 곳에 위치한 **나하리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려운 히브리어 공부로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힘들 때 ‘인적이 드문 바닷가에 가서 스트레스 좀 털어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텔아비브 바닷가가 가깝고 좋지만, 조금 더 멀리 가고 싶어서 이스라엘에 오래 사셨던 분에게 물어보니 ‘기차 타고 나하리야 다녀와’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나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기차로 갈 수 있는 도시 중 가장 북쪽에 있는 바닷가 마을입니다.

기차! 왠지 낭만적인 느낌이 드는 운송 수단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차는 KTX와 같은 고속열차는 아닙니다. 적은 인구와 작은 면적의 나라이기에 기차 인프라도 잘 되어있지 않아서 대부분 지역을 기차보다는 버스나 자가 승용차를 이용하는 편이고, 기차는 주

로 국가가 제공하는 승차권 혜택을 받는 군인들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최근 반가운 뉴스로는 예루살렘에 트램이 설치되고부터 다른 기차 노선도 많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늘어나는 자동차들을 해결할 방법을 이스라엘 정부 역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하리야까지 자동차로 운전해서 가면 약 170km의 거리,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요, 기차를 타고 간다면 텔아비브까지 가서(약 40분) 기차를 갈아타고 2시간을 더 가야하니 기차가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색다르게 여행한다는 기분을 내며 낭만 기차를 타고 북쪽 끝 도시를 향합니다.

나하리야(Nahariya)는 기원전 3,400년 전에 세워진 성채가 발굴된 오래된 도시이지만, 그 이후로는 비잔틴 시대 때의 성 나자로에게 봉헌된 성당이 발굴된 것 외에 별다른 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성당은 페르시아 침입 때 파괴된 것으

로 추정되며 건물은 남아있지 않지만 아름다운 모자이크 바닥을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도시는 영국위임통치 시대 때 시온주의(유럽에서 시작된 팔레스타인에 유대인국가를 만들자는 운동) 회사가 레바논 아랍 지주로부터 땅을 매입하여 2차 세계대전 때 나치로부터 피난 온 독일계 유대인들에게 지급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곳은 팔레스타인에 현대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지중해변 북쪽과 갈릴래아 지역에 이런 마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을들 주변에는 시오니즘과 현대 이스라엘의 초기 정착민들에 대한 전시관 또는 학습관이 있는데, 아코와 이 도시 사이에도 “**Getto Fighter’s House**”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나치가 유대인 학살을 계획할 때 그들을 몰아넣은 게토에서 저항운동을 했던 사람들과 희생자들에 관련한 박물관입니다. 안네 프랑크 이야기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엔 견학을 온





나하리야 근처바다

학생들이 많이 보입니다.

나하리야 기차역에서 해변까지는 15분 거리입니다.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쓸어 넘깁니다. ‘아~ 이거지! 충분해! 이제 그냥 집으로 가도 여한이 없어!’ 하는 만족감이 입꼬리를 밀어 올립니다. 지중해 거주민처럼 느릿한 걸음으로 마을 구경을 하며 해변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텔아비브 해변과는 사뭇 다른 조용하고 고즈넉한 분위기입니다. 대부분의 식당과 카페에 야외석이 있습니다. 선글라스 하나 쓴 편안한 차림의 사람들이 강렬한 햇빛을 즐기

고 있습니다.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바다 바로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카페 야외석에 자리를 잡고 이스라엘은 우유가 맛있으니 카페 라떼 한잔 마셔야겠습니다. 그야말로 새파란 바다와 반짝이는 물결을 한참이고 바라보며 불어오는 바닷바람 한 모금, 커피 한 모금, 행복 한 모금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나하리야는 이렇게 삶에 쉼표를 찍는 이스라엘 최북단 바닷가 마을입니다. 여유로운 시간을 잘 보내고 여행을 다시 이어나갑니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약 5km 떨어진 거리에 **약집(Achziv)**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지만, 여호수아기와 판관기



로쉬 하 니크라

에 이름이 언급되는 아세르 지파의 땅입니다. 이곳도 기원전 18세기부터 사람이 살았던 아주 오래된 도시이며, 가나안 시대부터 영국위임통치 시대까지 마을이 있었는데 아코를 가기 전 휴게소 역할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고고학적 유적 일부를 볼 수 있는 해변이 되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곳에서 수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사나운 지중해 파도로부터 수영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고고학적 유물 바위 반, 자연적으로 생성된 바위 반으로 이루어진 방파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잘 모르는 친구가 배낭여행을 하다 약집에서 수영을 하고, 이곳이 아주 훌륭한 자연 수

영장이라고 제게 소개를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이곳은 수심이 낮고 파도의 영향을 받지 않기에 즐겁게 물놀이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유적지의 수영장화라니, 이스라엘다운 발상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기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발걸음을 돌려 북쪽으로 6km 정도 이동하면 이스라엘 북쪽 끝, 레바논과 맞닿아 있는 곳에 다릅니다. 이곳의 이름은 **로쉬 하 니크라 (Rosh Ha Nikra)**입니다. 로쉬가 ‘머리’라는 뜻이고, 니크라는 ‘동굴’이라는 뜻입니다. 지중해변 이스라엘의 북쪽 끝부분이



로쉬 하 니크라



악집



악집



이스라엘 기차

기도 하며,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지점이기에 이런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오기 전에 영국의 브라이튼이라고 하는 바닷가 도시에서 어학연수를 하였는데, 근교에 세븐 시스터즈라고 불리는 하얀색 절벽으로 유명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유럽이 처음이어서 하얀색 절벽은 영국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영국 다음에 온 이스라엘에서 만난 흰 절벽은 저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 아름다움이 영국의 절벽보다 더 멋졌습니다. 규모는 영국보다 많이 작지만 굵은 영국 날씨에

대서양 바다의 색감이 어두워서 하얀 절벽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했었는데, 이곳에서 파란 지중해와 대비되는 눈부신 하얀 색 돌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가파른 경사를 따라 만들어진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서 한 바퀴를 돌고 나오는 코스입니다. 하얀 돌 위로도 걸어보고 수정처럼 맑게 빛나는 동굴도 보고 나면, 빠질 수 없는 카페가 해변 길을 따라 마련되어 있습니다. 입구 쪽에 레바논 베이루트까지는 120km, 예루살렘까지는 205km라는 표지판이 보입니다. 굳게 닫힌 철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레바논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

논은 국교를 성립하지 않았기에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시리아 내전이 심화되지 않았을 때는 관광코스로 두바이-시리아-레바논-요르단-이스라엘 여정으로 관광을 하는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코스 중의 하나가 이곳 로쉬 하 니크라였는데요, 관광객들이 표지판을 보면서 ‘우리 저기 있었는데’ 하며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나하리야에서 끝난 기차길이 영국군 통치 시대 때는 이곳을 지나 120km 떨어진 베이루트를 지나 트리폴리까지 이어졌었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엘 칸타라(El Qantara)라고 하는 수에즈 운하의 북부 도시에서 하

이파까지 이어졌던 철도의 연장구간이었습니 다. 오리엔트 특급열차가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끝나는데, 이 구간까지 연결이 되었다면 유럽과 예루살렘 기차로 오갈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았던 시절에 성지순례를 한 달 동안 하셨다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중동 땅에 평화가 찾아오면 기차길을 만들어 ‘구약의 땅 - 예수님의 발자취 - 사도들의 발걸음 - 유럽의 성지’까지 순례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상상 속의 이야기이지만 언젠가는 가능할 기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

신앙인의 눈으로 읽는 고전 문학 -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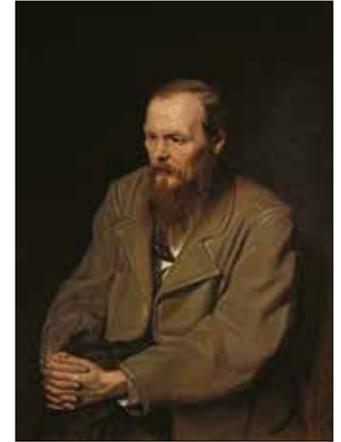
도스토예프스키 소설의 미학

최대한 신부 의정부 교구 / 대신학교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담긴 신학적 사상과 영성적 통찰을 보다 더 잘 만나기 위해서 이 작품의 몇 가지 소설 미학적 특징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들은 시대적 간격과 상관없이 독자들을 사로잡는 힘이 있으며, 그 이후의 숭한 뛰어난 문학작품에 영향을 미쳤기에 오늘의 독자들에게도 자연스럽고 익숙한 부분도 있지만, 그 구조나 전개 방식에서 복잡하고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작품이 담고 있는 주제의 놀라운 심오함이나 인물의 심리에 대해 복잡하면서도 탁월한 묘사들은 때로는 모순적이거나 과장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의 소설 미학의 특징에 익숙해지면 이런 진입장벽을 넘어 그의 작품의 의미에 보다 잘 접근할 수 있습니다.

- #1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소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은 ‘부친살해’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벌』, 『악령』 같은 그의 대표작들은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중심으로 그 줄거리가 전개되는 ‘범죄소설’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지금과 마찬가지로 당대에도 대중을 겨냥하며 유행했던 대중소설이 즐겨 다룬 소재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사실 괴테나 실러와 같은 유럽의 대문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또한 대중을 위한 범죄소설의 원조격인 근대 영국의 ‘고딕소설’의 열광적인 애독자이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말하자면 그의 소설에는 더없는 심오한 종교적이고 사상적인 주제와 함께 매우 대중적이며 ‘선정적’이라고도 일컬을 수 있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끄는 관심사가 혼재되어

있는 셈입니다. 범죄 소설적 요소는 그의 작품의 긴장과 몰입을 높이는 역할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 내면에 자리 잡은 죄와 타락이라는 실존적 주제를 강렬하게 보여주는 기법이 되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가 작품에서 추구하는 종교적 회심과 사상적 깨달음이라는 드높은 정신적 경지가 결코 인간 삶의 비참함과 폭력성이라는 현실에서 동떨어진 초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하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그의 작품 속에 알코올 중독자나 도박에 빠진 사람들, 명예를 잃고 낙오한 이들이 유난히 많이 나오고, 동정심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또한 경멸을 받게 하는 자기 변명이나 자기 연민의 장면이 거듭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겠습니까. 비참함, 나약함, 피폐함은 마치 어두운 배경처럼 소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긍정의 세계라는 빛을 또렷하게 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 세계에 있어 범죄 소설적 요소는 그리스도교적 구원의 절박성과 절대성을 더욱 심오한 차원에서 제시하는 미학적 장치로도 볼 수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대비하면서, 동시에 인간이 빛을 추구하는 본성과 함께 어둠에 깊이 물든 존재라는 것을 그의 소설 미학은 보여줍니다.



표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예프스키
Фёдор Миха́йлович Достое́вский
Fyodor Mikhailovich Dostoevsky
1821-1881

©Vasily Perov, 1872

#2 20세기에 손꼽히는 영문학자이자 인문학자였던 조지 스타이너(1929-2021)는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를 비교한 그의 탁월한 저서 『톨스토이냐 도스토예프스키냐』(서커스, 2019)에서 톨스토이가 호메로스의 서사시 전통을 완벽하게 소설 문학으로 되살린 천재이자 거장이었다면,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들은 그리스 비극 이래 오직 셰익스피어에 비견할 수 있는 비극 문학의 정점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도스토예프스키의 걸작들은 근대소설의 문학적 관습이 아니라 그리스 비극과 셰익스피어의 위대한 비극들이 가진 정서와 세계관, 그리고 인간관에 더 깊은 친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소설이 주제에 있어 그리스 비극작가들이나 셰익스피어처럼 한 인간의 영락을 통해 보편적인 인간 운명 전체를 정면으로 대면하며 그려낸다는 것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인간의 운명이라는 ‘위대한’ 주제와 만나 그리스도교적 세계관을 중심으로 삼아 대결하고 화해합니다. 그리고 비극과 마찬가지로 인물에 대한 심오한 탐구와 인물 상호 간의 상호작용과 이를 통한 상승내지 파국을 더없이 극적으로 그림니다. 그가 소설을 구상하면서 희곡의 기법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의 소설은 마치 셰익스피어의 위대한 희곡 작품들이 그러하였듯이 등장인물의 내면적 독백과 등장인물이 대립하는 인물과 불꽃이 튀듯 나누는 대화들을 통해 생생하게 등장하는 인물들을 이해할 때 비로소 그 진수를 감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작품이 지속적으로 독자에게 긴장과 도전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이 가진 비극성은 가장 위대한 연극과 본질적으로 상통한다 하겠습니다. 그의 작품에 있는 연극적 요소의 탁월함은 그가 창조한 인물들이 우리의 예측과 짐작을 벗어나고, 끊임없이 놀라움과 경악을 주게 하는 미학적 효과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그가 창조한 작품들이 ‘열린’ 결말을 맞이하는 것에 탁월한 개연성을 줍니다. 이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장대한 소설이 대미에 이르렀을

때 주인공이라 할 세 아들에게는 여전히 운명의 길이 열려있습니다. 부친살해라는 죄명으로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드미트리야 시베리아 유형의 길을 떠날지, 아니면 주변에서 권하는 탈출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그동안의 어둡고 혼란에 빠진 삶에서 회심하는 새로운 삶을 살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반이 섬망에서 회복될지, 아니면 그대로 죽게 될지, 회복된다면 신에 저항하고 거부하는 무신론적 사상 속에서 자기 분열적인 삶을 살지, 아니면 다시 생의 기쁨을 발견하고 신과 화해하는 가능성을 발견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치 성자와도 같고 때때로 예언자와 같은 면모를 보이는 더없이 선한 심성을 가진 청년 알료사의 인생 앞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시련과 시험이 찾아올지, 그리고 그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열려있는 결말들은 결어나 미완성으로 느껴지기 보다는 더 깊게 인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보여준 구원에 삶으로서 다가가기 위해 자기 자신을 개방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러시아 출신의 유명한 미학자이자 문학평론가 미하일 바흐친(1895-1975)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미학의 핵심을 ‘다성성(多聲性)’이라는 개념으로 요약했습니다. 그의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의 주제와 관점으로 억지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모순되게 느낄 정도로, 그리고 서로 대등한 적수로 여겨질 정도로 고유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과연 어떤 입장을 궁극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쉽게 판단을 내리기 어렵게 합니다. 이는 때때로 소설을 난해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입체적이고 풍부하게 하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연극을 위한 희곡의 성격과도 통하는 특징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 작품 해석에 있어 ‘양가성’을 늘 염두에 두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성성’의 성격은 도스토예

프스키에게 있어 유명한 ‘분신 모티브’와 결부되어 극대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정신분석학적 인간탐구의 선구자로 불리는 데에는 때로는 소름끼치는 전율을 주기까지 하는 분신이라는 주제의 탁월한 형상화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그의 작품 안에서 독자에게 소름끼치는 전율을 줄 정도로 압도적인 문학적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작품 활동 초기에 속하는 1846년에 스물다섯의 나이에 중편 소설인 『분신』을 통해 이 주제를 탐구하고 문학적 형상화를 시도합니다. 긴 세월을 거쳐 이 주제는 그의 대표적인 대작들에서도 탁월하게 사용됩니다. 이는 『죄와 벌』의 라스콜리니코프와 스비드리가일로프에서도 발견되지만, 가장 완벽한 예는 역시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의 이반 카라마조프가 스메르자코프와, 또한 이반의 환각 속에 나타난 중년 신사의 형상을 한 악마와 맺는 관계라 하겠습니다. 이반은 이들과 격렬하게 논전을 하고, 이는 그의 예고된 내적인 붕괴의 징후이자 계기가 됩니다. 이를 통해 도스토예프스키는 신 없는 인간의 분열적 내면을 참으로 입체적이며 ‘다성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 도스토예프스키는 자신이 높은 차원의 ‘리얼리즘 (사실주의)’를 추구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추구한다는 것이고, 그 진실은 초월적이라 할 종교적 진리를 포함할뿐더러, 궁극적으로 구원의 진리를 중심에 둡니다. 그러나 종교적 진리를 기적이나 논증으로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을 실천하는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은 궁극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의 신학과 영성은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됩니다. 도스토예프스키에 따르면 이러한 근본 의도는 동시에 인물의 사회적, 심리적 상황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결부되어야 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 소설 미학의 결정적 성취 중 하나

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복음서의 인용이 소설의 중심에 완전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에서 성서가 인용되고 그 본문이 낭독되는 가장 유명한 대목은 아마도 『죄와 벌』에서 소냐가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라자로를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리시는 대목일 것입니다. 이 장면은 살인을 저지르고도 끊임없이 합리화하는 라스콜리니코프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다시 소생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탁월한 대목이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서 주인공 알료사가 사부인 조시마 사제가 죽은 후, 잠시 혼동에 빠졌을 때 줄면서 요한복음 2장의 카나의 혼인잔치의 성서말씀을 듣다가, 비로소 신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는 장면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성서를 인용하는 방식은 결코 장식적이거나 도구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성서 말씀이 소설 안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게 합니다. 이러한 소설 미학은 개인의 주관이 아니라 하느님의 관상으로 이끈 이콘화의 정신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이처럼 다양한 미학적 방법을 통해 인간의 비참함과 죄, 그리고 구원을 향한 갈망, 참된 삶의 가능성,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술적 감수성과 사상적 추구, 종교적 순수함은 그에게서는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반이 들려주는 그 유명한 ‘대종교재판관’의 이야기와 조시마 사제가 세상을 떠나기 전 유언처럼 남긴 자신과 자기 형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듣는 알료사를 통해 연결되는 것은 이 소설의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됩니다. 다음에는 그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

진료실에서 바라보는 세상이야기

아버지와 나,
혹은 되고 싶었던 어른이 되지 못한 이들의 이야기

이형중 프란치스코_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교수

“아주 오래 전 내가 올려다 본 그의 어깨는 까마득한 산처럼 보였다. ... 스폰지에 잉크가 스며들 듯 그의 모습을 닮아 가는 나를 보며 이미 내가 어른들의 나이가 되었음을 느낀다. ... 할 말은 길어진 그림자 뒤로 묻어둔 채 우리 두 사람은 세월 속으로 같이 걸어갈 것이다.”

수줍게 웃던 선한 눈매로 소주라도 한잔 걸쳐야만 철 지난 유행가를 읊조리던, 은하수 담배와 스파이스 향수가 뒤섞인 뭉툭한 손가락에서 평생 결혼반지를 벗지 않았던 그가 떠난 지 올해로 28년이 되어 간다. 그가 들려주었던 많은 이야기들은 이제 그의 아들에 의해 얼굴도 보지 못했던 손자에게로 전해지고 있으며, 나는 있을 법한 데자뷰에 의지하여 그가 걸었던 그리고 걸었을 길을 가고 있다.

선친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나로서는 정확히 알 길은 없다. 다만 추억으로 소비되는 그분의 습관, 어투, 성품, 그리고 남겨진 유품들을

근거로 할 때 대략의 추측이 가능할 뿐이다. 거울을 봐야만 알 수 있는 내 모습과 녹음된 음성으로만 확인 가능한 내 목소리에서, 여기에 더하여 알게 모르게 내 판박이인 아들의 무의식적인 습관들을 보면서 숨길 수 없는 DNA의 무서움을 느끼는 한편, 내가 모르는 아버지의 인생 전반부 궤적을 스스로 스케치해 본다. 과연 아버지는 스스로가 납득할 만한 인생을 사셨을까? 이에 대한 답변은 많은 부분을 물려받은 내가 스스로에게 증명해 보이는 것 외에는 없을 것이다. 내 인생에 대한 적정성 평가(?)는 내 뒤를 이어 아들이 해 줄 터이니 말이다.

누구의 아들에서 누구의 아버지로 호칭이 변경될 무렵이면 부자지간에 목욕탕에서 서로 등을 밀어주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어머니 혹은 마누라란 공동의 적에 대항하기 위해 동맹을 맺는 남성들의 무언의 의식이다. 말하지 않아도 속내를 알아차리는 맨살의 부



셰인
Shane, 1953
드라마, 서부 | 미국 | 118분



여인의 향기
Scent Of A Woman, 1992
드라마, 코미디 | 미국 | 157분



챔프
The Champ, 1979
드라마 | 미국 | 117분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
Kramer Vs. Kramer, 1979
드라마 | 미국 | 105분

딛힘은 막강한 모성애가 미처 차지하지 못한 틈새를 슬그머니 파고들어, 어깨쳐진 불쌍한 이 땅의 아버지들을 그나마 미소 짓게 만드는, 작지만 믿음직한 평생 연금이라. 하지만 지금의 코로나 사태는 이런 소박한 행복도 앗아가고 있다.

<셰인, 1953>은 표면적으로는 악당에 대적하는 떠돌이 총잡이를 다룬 ‘사랑방 손님 어머니’의 서부영화 버전이지만, 가족의 안위 때문에 소심해진 아빠가 보여주지 못했던 이방인 카우보이 셰인의 남자다움에 매료된 아들 조이의 짧은 성장통이기도 하다. 실질적인 아버지의 부존을 권총으로 메우려 했던 외부인은 자기로 인해 가족관계에 금이 갈 것을 예감하고는 돌아오라는 조이의 메아리를 뒤로한 채, 홀연히 마을을 떠난다. <여인의 향기, 1992>에서 퇴학 위기에 빠진 고교생 찰리를

위해 재단 이사들 앞에서 ‘정의란 무엇인지’를 설파했던 맹인 퇴역군인 프랭크처럼 심각한 아버지를 대신한 멘토라 할 수 있다.

<챔프, 1979>와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 1979>는 아내에게 버림받은 남편이 진정으로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아들을 엄마에게 돌아가게 하려고 마음에도 없는 심한 말을 내뱉고는 울부짖는 은퇴한 복서 존 보이트와 갑자기 집을 뛰쳐나간 부인 때문에 가사를 돌보느라 회사에서 해고되어 결국 양육권까지 빼앗기게 된 더스틴 호프만. 가정의 해체로 인해 충돌하는 모성애와 부성애, 그 안에서 방황하는 자식을 위한 현실적이지만 낙관적이지 않은 결말이 제시된다. 최선이 무엇일지 자문해본다. 양육권에 대한 냉철한 법적 잣대는 <아이 엠 샘, 2001>에서 관객을 심리적 공황으로 내몬다. 7살 아

이 지능의 손 펜이 보여 준 연기는 비틀스의 음악 Lucy in the sky with diamonds에 실린 아역 다코타 패닝(극중 이름 루시)과 조연들의 감동적인 연기와 더불어 영화가 끝나고 도 눈물을 보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몇 분간의 암전이 더 필요했다.

겉으로 평범해 보이는 미국의 중산층 가장 케빈 스페이시는 실상 좌절감과 무력감으로 가득 찬 숨 막히는 생활을 하던 중 딸의 친구 메나 수바리를 만나게 되면서부터 성적환상과 일탈을 꿈꾸며 활기차게 변화한다. 외도를 들킨 아내를 의식하지 않고 애착이 없던 자식을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진정한 자유와 아버지상을 찾아가던 중 옆집 퇴역군인의 총에 사라지게 된다. <아메리칸 뷰티, 1999>는 일상의 평온함에 숨겨졌던 위선의 꺼풀 속에서 자리를 잃고 온 가족으로부터 존재감이 없어져 버린 아버지의 파국을 미국식으로 건조하게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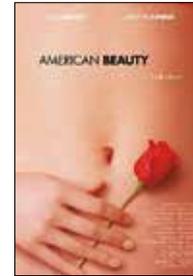
영국영화 <아버지의 이름으로, 1993>와 <빌리 엘리엇, 2000>는 아버지와 아들의 오해에서 빛어지는 갈등을 화해와 개인적인 성숙으로 이끌어 내고 있다.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무고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아들은 아버지의 임종에 다다라야 실은 그가 강한 내면을 가졌던 위대한 인간이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무죄판결을 이끌어 낸다. 발레를 하는 아들을 백안시하던 권투선수 출신 아버지는 아들의 춤을 보고 말할 수 없는 걱정애 사로잡혀 아들을 탄광에서 탈출시키기 위해 큰아들과 동료 탄광 인부들의 오해에도 굳건하게 버텨낸다. 무대에서 비상하는 빌리의 마지막 장면. 아버지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음에 안도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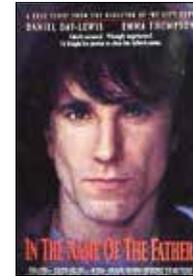
스탈린이 보낸 암살자 앞에서 죽어가던 트로츠키가 했던 말은 “그래도 인생은 아름다워.”였다. 제2차 대전으로 수용소에 갇히게 된 유대인 로베르토 베니니는 아들 조슈아가 비극적인 현실을 맞닥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음의 순간까지도 게임으로 치장하고 눈물을 보이지 않는다. <인생은 아름다워, 1997>는 설명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은 채 담담하게 그려낼 뿐이다. 그럼으로써 아버지란 이름의 위대함을 가슴이 터지도록 생생하게 느끼고 죽음을 뛰어넘은 부성애가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회귀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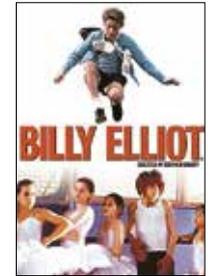
아이 엠 샘
I Am Sam, 2001
드라마 | 미국 | 132분



아메리칸 뷰티
American Beauty, 1999
드라마, 코미디 | 미국 | 122분



아버지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The Father, 1993
드라마, 스릴러 | 아일랜드, 영국 | 133분



빌리 엘리엇
Billy Elliot, 2000
드라마, 가족, 코미디 | 영국, 프랑스 | 110분

<태풍이 지나가고, 2016>에서 죽은 아버지의 자취는 찾기 어렵다. 소설가를 꿈꿨지만, 흥신소 직원이 되어 버린 아들 료타는 경륜과 복권 구입을 위해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녔던 선친의 붕어빵이다. 더구나 그는 이혼을 한 채 직업을 이용하여 전 부인의 뒤를 캐며 아들 상고에게는 돈이 없어 운동화 한 켤레 사 주기도 벅차다. 흥신소 일로 만난 고등학생에게 료타는 말한다. “모두가 되고 싶었던 어른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이 말은 마치 현실이 과거와 단절되어 미래로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지워진 어느 한 시점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다 부재(不在)는 아니다. 가시적이지 않을 뿐 분명 어딘가에 존재하고 현재의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런 영향은 상호보완적이라고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말하는 듯하다. 살아간다는 것은 거창하지도 복잡하지도 않다. 현실은 사소한 사건의 연결 속에서 아름답게



인생은 아름다워
La Vita e Bella, Life Is Beautiful, 1997
드라마, 코미디 | 이탈리아 | 116분



태풍이 지나가고
海よりもまだ深く, After the Storm, 2016
드라마 | 일본 | 117분

빛을 발하며 완성되니 죽음과 부재,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이 관계를 맺을 것이다. 인생은 지속되며 항상 미완성이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결국 끊임없이 관계를 재설정하고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여 나를 완성해가는 과정일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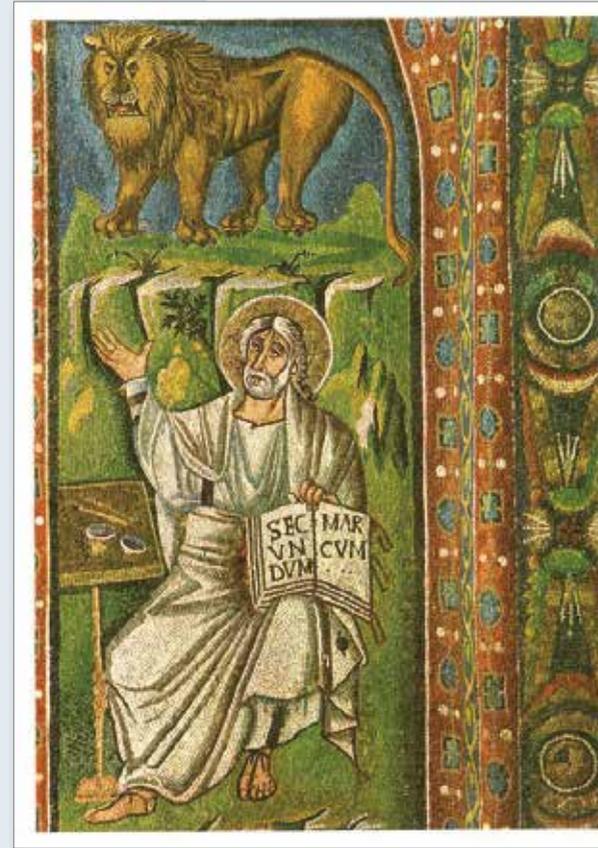
그림으로 만나는 성인이야기

복음사가 성 마르코

윤인복 소화데레사_ 인천가톨릭대학교 그리스도교미술학과(대학원) 교수

성 마르코(St. Marcus, 1세기경)는 로마에서 성 베드로의 가르침에 따라 마르코 복음서를 저술했다. 성인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기록하고 전파하는 일에 선택된 사람이었다. 전해지는 자료에 따르면, 마르코 성인은 바르나바 성인의 조카로 키프로스 태생의 레위 사람이다. 그는 바오로 사도의 첫 번째 선교 여행에 동행했고 이후에는 바르나바 성인과 함께 키프로스 전교 여행을 떠났으며, 나중에 베드로 성인으로 로마로 갔다고 전한다. 마르코 성인이 로마로 간 뒤의 행적에 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설교하며 그곳에 최초의 그리스도 교회를 세웠다고 한다. 또한 전승에 따르면, 성인은 알렉산드리아의 초대 주교였으며, 미사 집전 중 이교도들에게 붙잡혀 목에 밧줄이 묶인 채 도시를 끌려다니는 고문 끝에 순교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교도들이 성인의 시신을 불태우려 하자 천둥과 번개가 쳤고, 그 자리에 있던 이교도들은 놀라 달아났고, 이때 신자들이 성인의 시신을 수습해 인근 교회에 모셨다고 한다. 그 후 마르코 성인의 유해는 829년에 베네치아 상인들에 의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성 마르코 성당으로 옮겨져 공경받고 있다.

마르코 성인은 튜닉을 입은 장년의 남자로, 복음서를 혼자 저술하거나 베드로, 천사, 성령의 비둘기,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 복음서를 작성하는 모습으로 자주 그려진다. 특히 성인을 둘러싼 다양한 전설들도 작품의 소재가 되었고, 이러한 예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베네치아의 거장 틴토레토가 그린 성 마르코의 생애 연작이다.



<마르코 복음사가>, 6세기, 모자이크, 산 비탈레 성당, 라벤나

복음서 저자, 마르코

고대 로마의 전통적인 인테리어 장식미술로서 계승 발전한 모자이크는 교회의 내부를 장식하는 데에 주로 쓰였다. 모자이크 벽은 내부로 들어온 빛이나 실내의 조명(촛불이나 햇빛)의 빛을 반사하여 초월적인 공간을 형성하는 데에 일조하였으며, 교회 내부를 천상의 예루살렘으로 변화시키는 주요한 장식 요소로 여겨졌다. 이탈리아 동북부 아드리아 해변에 위치한 라벤나의 산 비탈레(San Vitale) 성당의 모자이크 장식에서 이러한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라벤나는 5세기에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수도가 되고, 이 후 6~8세기까지 동(東)고트족의 이탈리아 왕국과 비잔틴 제국령 이탈리아

의 수도가 된다. 동로마제국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527~565년)는 라벤나를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짓도록 명했다. 산 비탈레 성당은 대부분 성경 이야기를 담은 모자이크 장식이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으며, 건물의 내부 장식은 건축구조에 따라 구획돼 있다.

산 비탈레 성당 제단(presbyterium) 입구의 아치 위에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모습을 담은 메달리온이 있다. 제단 궁륭에는 작은 양이 그려진 메달리온이 장식돼 있는데, 네 천사가 그것을 보좌하고 있으며 풍성한 포도 넝쿨 모티프가 전면을 채우고 있다. 제단의 남쪽과 북쪽의 수직 벽면에는 복음서 저자들과 그들의 상징물이 그려져 있다. 마르코 성인도 복음서를 저술하는 모습을 담은 모자이크로, 펜과 잉크를 앞에 두고 오른손은 하늘을 향한 채 왼손은 펼쳐진 마르코 복음서를 잡고 있다. 성인의 머리 위에는 그의 상징인 사자가 자리하고 있다.

6세기 시리아교회 에뎃사(오늘날 터키 우르파)의 주교 라불라(Rabbulla)의 복음서에 표현된 '예수 승천' 장면에도 복음사가들의 상징을 찾아볼 수 있다. 부활한 예수님은 올리브 동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육신과 영혼을 지닌 채 하늘에 오른다. 예수님은 지상 생활을 마치고 하늘에 계신 성부의 오른편에 앉는다.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권세와 권력과 권능과 주권 위에, 그리고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불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에페 1,21) 예수께서 승천하는 내용은 하늘과 땅이 분명히 구분되도록 가르친다. 만돌라(Mandola, 신성한 하늘과 빛, 그리고 영광을 의미)에 둘러싸인 예수는 천사들의 시중을 받으며 하늘로 오르고, 지상에는 그 광경을 경이롭게 바라보는 제자들이 있다. 특이한 점은 가운데 푸른 옷을 입은 성모 마리아가 '기도하는 자세'(오란테, Orante)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성모 마리아가 상징적으로 지상의 교회라는 은유적 표현이다.



라불라 복음서, <예수 승천>, 586년경, 양피지, 라우렌치아나 도서관, 피렌체

예수님의 발아래에는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에제 1,5)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공간인 만돌라를 에워싸고 있다. 요한묵시록에 따르면 네 생물이 가장 높은 옥좌를 에워싸고 있다고 한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황소 같았으며,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습니다.”(묵시 4,7) 사람, 사자, 황소, 독수리는 그리스도교에서 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복음서를 상징한다.

마태오 복음서는 인간 삶의 여정인 족보로 시작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마르코 복음서는 요한 세례자의 광야 설교로 시작하기에 광

야의 왕 사자로, 루카 복음서는 사제 즈카르야가 지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장면부터 시작하기에 황소로 나타낸다. 또 요한 복음서의 신학이 날카롭고 깊다는 의미에서 요한 복음서는 독수리로 표상된다. 독수리만이 조류 가운데 유일하게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네 복음서를 발판 삼아 하늘로 오르시는 예수님은 왼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신다. 그리고 봉인된 두루마리를 펼치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영예와 영광과 찬미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말해주고 있다.(묵시 5,12)

마르코의 기적 이야기

베네치아의 최고의 화가 자코 로부스티(Jacopo Robusti, 1518-1594), 일명 틴토레토(Tintoretto)는 극적인 빛의 사용과 인물의 과장된 동작과 역동적인 구성으로 마르코 성인의 생애를 그렸다. 짧고 빠른 필치로 그림의 마무리가 부족하다는 비난도 있었지만,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거친 붓 터치와 색채를 사용했다. 틴토레토는 마르코 성인이 사라센 선원을 구하는 사건에서도 많은 인물들을 역동적으로 표현하여 성인의 기적을 박진감 넘치게 전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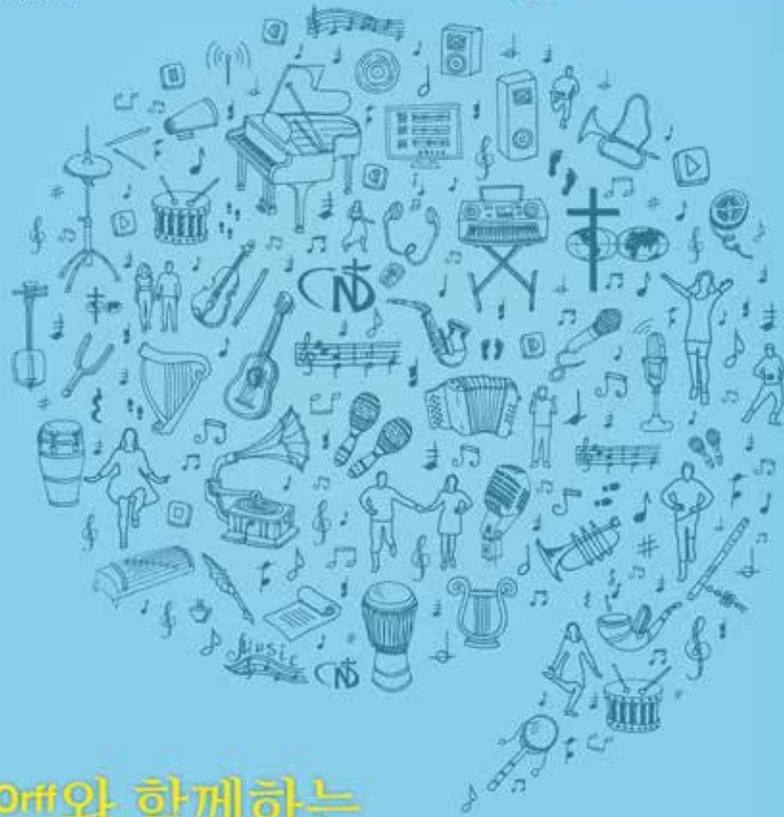
마르코 성인은 난파한 배의 사라센 선원들을 구해주는 기적을 행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센 바다와 검은 먹구름이 뒤덮인 하늘 사이에 배는 난파할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다. 멀리 배 한 척은 이미 뒤집혔고 거기서 바다로 떨어진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다. 앞쪽에 구명선을 탄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도 생명의 위험을 느끼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때 하늘에서 마르코 성인이 나타나 사라센 선원을 구한다. 찬란한 빛을 발산하며 붉은 옷을 입은 성인은 난파한 배의 선원을 끌어올리고 있다. 살아난 선원은 개종하기로 성인과 약속했지만, 그는 곧 맹세를 잊어버리고 만다. 성인



틴토레토,
<난파된 사라센 선원들을 구하는 성 마르코>, 1562-66, 캔버스에 유채, 아카데미아 미술관, 베네치아

은 이 선원에게 다시 나타나 맹세를 일깨워 주었고, 사라센 선원은 바로 베네치아로 가서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세례명을 마르코라고 지었다.

마르코 성인은 복음사가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외에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수호성인으로 대중적 인기가 많다. 베네치아의 대성당도 도시의 수호성인인 성 마르코에게 봉헌된 곳이다. 6



오르프와 함께하는 심, 움직임

주제 리듬, 음악을 통한 몸의 자유
오르프슈울레크(Orff-Schulwerk) 프로그램

대상 39세 이하 청년직장인(10명 이내)

일시 3월 15일~6월 14일(매주 화요일) 19:30~21:00

장소 성골롬반외방선교회(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번출구)

강사 권현경 마리 요한나타 수녀(노들담 수녀회)

회차 모임당 4만원

문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02-924-3048
(카톡ID: k_orff)

프로그램 일정

일 자	수업 내용(총 4회)
1차 모임(3/15~4/5)	5박자(1박) 내의 리듬과 함께 움직임, 리듬, 피음, 문학
2차 모임(4/19~5/10)	올레주(2박) 리듬으로 대화하기(가림, 정성표, 문학)
3차 모임(5/24~6/14)	셋박자(3박) 소리물 노크(다노크, 장상물, 문학)
넷박자(4박) 나를 표현하기(노크, 움직임, 장상물, 문학)	

• 본교를 통해 후원하신 후원금에 대해서는 후원금 영수증만 발급하며, 후원금 영수증은 후원금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발급 가능합니다. 후원금 영수증은 후원금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발급 가능합니다. 후원금 영수증은 후원금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발급 가능합니다.

명동밥집

“빵은 하나이고 우리 모두가 그 한 덩어리의 빵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이니 비록 우리가 여럿이지만 모두 한 몸인 것입니다.”
(1 고린 10장 17절)



나는 나눕니다.

슬퍼하는 친구를 위해 눈물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기쁜 소식을,
이웃을 위해 시간을,

그리고 배고픈 이들과
따스한 한 끼를 나눕니다.

나누는 마음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따뜻한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급식소 '명동밥집'에 함께해주세요.

명동밥집 후원하기

■ 신청방법 : 홈페이지 mdbj.or.kr 전화 02-774-3488

후원계좌

■ 무료급식 후원 : 우리은행 1005-604-022962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자활사업 후원 : 우리은행 1005-304-138483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세액 공제 받으실 분의 성함으로 입금하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명동밥집 봉사자 신청 : 명동밥집 홈페이지 참조(mdbj.or.kr)



"JESUS CHRIST SUPERSTAR"

Decca Records, 14"x18", Black Ink On Board

The package was the challenge, Decca Records the prize. When I went to work for the agency that I did this logo and album package for, it was with their hope that I could save the Decca Records account in an agency shootout. The two art directors that were leaving to start their own agency had befriended the client and were hoping to take his business with them. - Ernie Cefalu / Creative Director



www.catholicworkers.or.kr

Tel: 02-727-2078, 2080 Fax: 02-753-3792

Mobile: 010-4799-2078, KakaoTalk ID: gikjang

E-mail: gikjang@catholic.or.kr